



단기 저점의 신호들

1. 중요한 지지대 도달

- KOSPI, 최근 하락 과정에서 10월 저점대 수준에 도달한 가운데 반등. 60일 이평선 기준 이격도 역시 95%대까지 하락해 단기 저점대 형성 가능한 수준.
- S&P500지수 역시 12월 저점대이자 9월 고점대 위치한 지지대 도달. RSI역시 이전 저점대 도달해 하방 경직성 기대

2. 신용잔고 감소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

- 지난 6월 이후 KOSPI 장기 하락세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가 급락 후 반등하는 시점에 신용용자 잔고 급감. 신용용자에 대한 반대 매매가 나가는 시점에서 지수 저점대 형성하는 모습
- 전일 KOSPI와 KOSDAQ지수가 반등하는 가운데 1월 19일 기준 신용용자 잔고 감소. 추가 확인 필요하지만 단기 저점대 형성 가능성 높은 모습

3. 외국인 옵션 대규모 순매수 이후의 패턴

- 1월 19일 5일 연속 KOSPI200 지수 하락하는 가운데 외국인 풋옵션 445억원 순매수
- 과거 외국인 투자자들이 추세 추종형으로 옵션을 대거 순매수한 경우 시장은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음

1. 중요한 지지대 도달

예상보다 빠른 미국 금리 인상의 우려감으로 글로벌 증시가 조정 국면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대부분 주요 증시들이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지대에 도달한 모양이다. KOSPI의 경우 11월 30일 저점인 2,822.73pt에 위치한 가운데 전일 장 중 저점이 2,830.97pt까지 떨어진 후에 반등했다. 이전 저점대의 지지와 더불어 60일 이평선 기준 이격도 역시 전전일 95%대까지 하락한 후에 반등했다. 극단적인 하락 국면이 아니라면 단기 조정 과정에서 KOSPI는 95% 부근에서 단기 저점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어 추가 하락이 쉽지 않은 가격 대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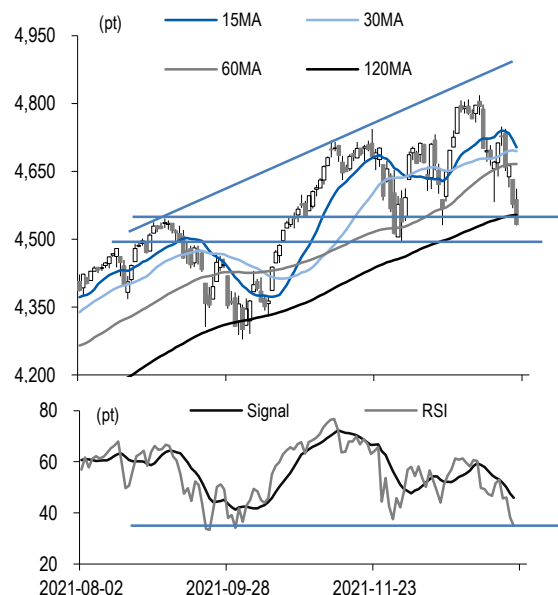
미국증시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S&P500 지수는 작년 12월 저점대와 9월 고점대의 지지대가 위치한 수준까지 하락해 반등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보조지표상으로 RSI도 이전 저점대 수준까지 하락했고, 120일 이평선을 하회했지만 여전히 장기 이평선들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장기 추세 반전에는 시간이 필요한 모양이다. 차트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KOSDAQ 종합지수 역시 10월 저점대 부근에서 반등했고, NASDAQ종합지수도 10월 저점대 부근에 도달해 지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판단된다.

[차트1] KOSPI 일봉과 이격도, 10월 저점대 부근까지 하락, 60일 이평선 이격도 95%대에서 반등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S&P500 지수, 12월 저점대와 9월 고점대 등의 지지대 도달. RSI 도 전저점 지지대 수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신용잔고 감소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

작년 6월 이후 KOSPI의 장기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KOSPI와 KOSDAQ 지수와 신용융자 잔고는 단기 급락 국면에서 일정한 규칙성을 보였다. [차트3]은 유가증권시장, [차트4]는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 잔고와 지수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지수가 급락한 후에 반등이 시작되면서 신용융자 잔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주가 급락 시 신용매수에 대한 반대매매가 나오기 때문에 신용융자 잔고가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시점을 바닥권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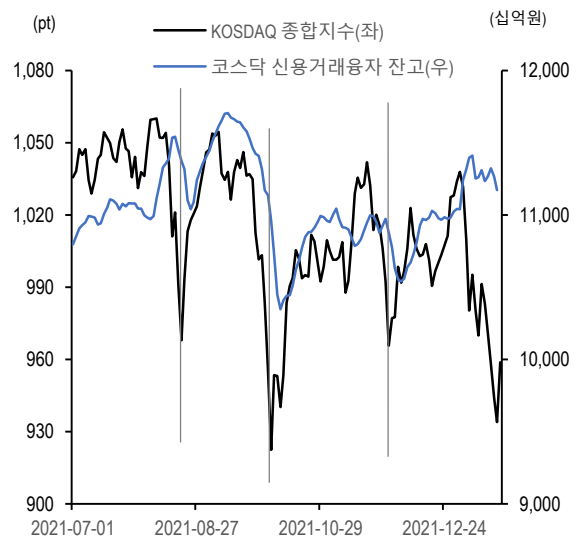
전일 KOSPI와 KOSDAQ 지수가 반등한 가운데 1월 19일 신용융자 잔고는 18일 대비로 1,377억원 감소했다. 20일 기준 데이터는 오늘 발표되는데, 이보다 더 줄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월 19일까지로만 보면 신용융자 잔고는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과거 급락 후 반등 과정에서 신용융자 잔고가 급감해 향후 몇 일 간 발표되는 신용융자 잔고가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면 반등에 대한 신뢰성은 높아질 것이다. KOSDAQ 지수의 경우 전일 2.66% 상승한 가운데 19일 기준으로 전일 대비 927억원 감소해 비교적 빠르게 잔고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신용 잔고와 주가 흐름으로 볼 때 단기 저점대 형성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차트3] KOSPI와 유가증권시장 신용거래용자 잔고 추이, KOSPI 급락 후 반등 과정에서 신용융자 잔고 급감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금융투자협회

[차트4] KOSDAQ 지수와 KOSDAQ 시장 신용거래용자 잔고 추이, 지수 급락 후 반등 과정에서 신용융자 잔고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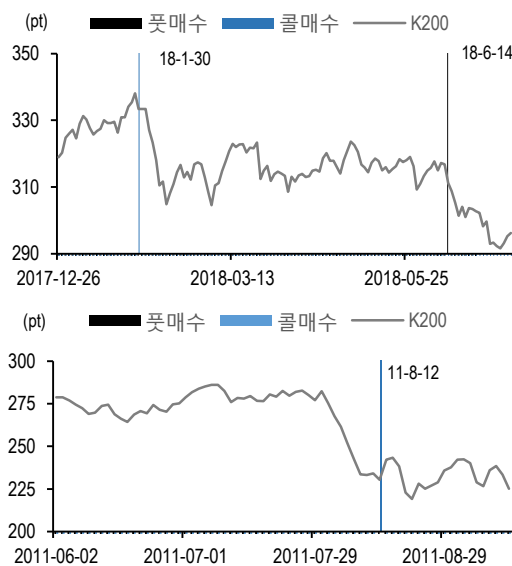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금융투자협회

3. 외국인 옵션 대규모 순매수 이후의 패턴

지난 19일 외국인 투자자들은 KOSPI200 옵션 시장에서 풋 옵션에 대해서 434억원 순매수하고 콜 옵션에 대해서 10억원 매도해 하락 방향으로 강하게 베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날 KOSPI200지수는 -0.73% 하락하면서 5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시장의 불안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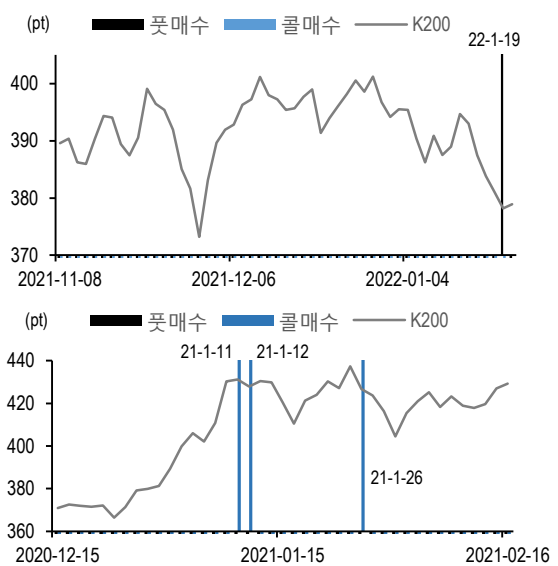
[차트5]와 [차트6]은 2011년 초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옵션시장에서 300억원 이상 콜옵션 또는 풋옵션에 대해서 순매수한 날을 표시한 것이다. 풋옵션에 대해서는 19일 포함 2회에 불과하고 콜옵션도 5회에 그친다. 재미 있는 점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옵션을 대거 매수하는 경우 추세 방향으로 매수하는 전략은 대부분 실패했다는 점이다. 2018년 1월 30일과 2021년 1월 중의 콜옵션 매수는 최고점 부근에서 이뤄졌다. 반대로 단기 추세와 반대 방향으로 이뤄진 2018년 6월 14일의 풋매수와 2011년 8월 12일의 콜매수는 성공적이었다. 즉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옵션 순매수는 추세 추종형으로 진행될 때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역추세로 매수할 때에는 성공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5일 연속 급락세로 진행된 가운데 나타난 19일의 외국인 풋 매수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차트5] 외국인 투자자들이 풋 또는 콜 옵션에 대하여 일간 300억원 이상 순매수한 경우(2011~2018)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6] 외국인 투자자들이 풋 또는 콜 옵션에 대하여 일간 300억원 이상 순매수한 경우(202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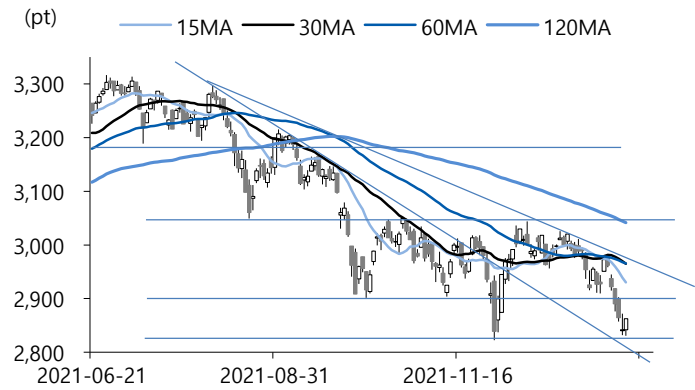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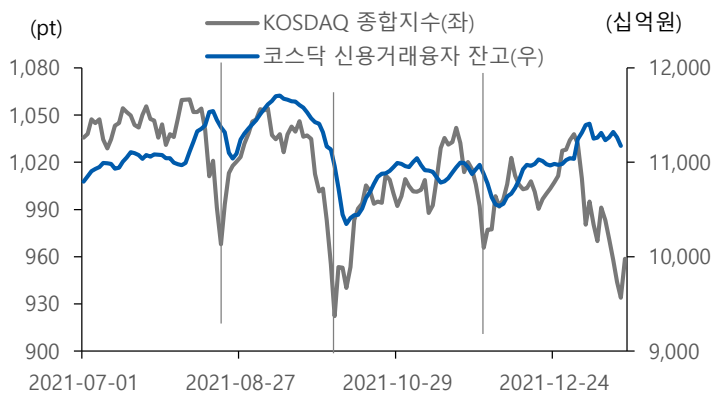
Key Chart

KOSPI 일봉과 이격도, 10월 저점
대 부근까지 하락, 60일 이평선 이
격도 95%대에서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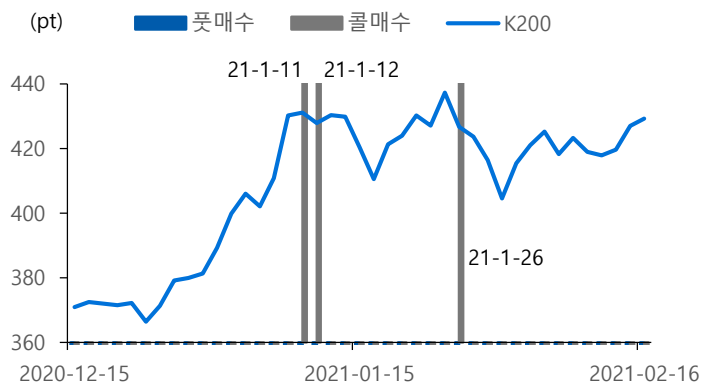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지수와 KOSDAQ시장
신용거래용자 잔고 추이, 지수 급
락 후 반등 과정에서 신용용자 잔
고 급감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풋 또는 콜 옵션에
대하여 일간 300억원 이상
순매수한 경우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